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6. 22.(목) 06:00 ~ 23:00
- 상담건수¹⁾: 715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

-프로그램명 :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방송일시 : 2023. 6. 21.(수) 1TV (24:00-24:50) (재)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어떻게 될지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의 난민들을 만나보았다. 전반적인 짜임새가 좋아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했고, 호소력 있는 방송이었다. 내국민과 난민을 차별하지 않는 독일의 사례를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다. 감명 깊은 방송이었다.

○ 방송 제언(14명)

-프로그램명 :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2부’

-방송일시 : 2023. 6. 21.(수) 1TV (22:00-23:10)

언론 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출연자들로 구성되어 찬반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유익하지 않았다. 방송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송으로 여겨져 보기 불편했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3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715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338	23	-	-	354	715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35	248	13	-	1	118	715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68	547	-	715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44	1	73	97	715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로병사의 비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방 제언 <p>【시사·교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 「시사기획 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호평 ○ 「인간극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연자 섭외 제언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p>【드라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일드라마 「비밀의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극본 제언 <p>【라디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영일의 시사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제언 	<p>【방 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시 내고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니짱 멜론’ 연락처 문의 30건 ○ 「2TV 생생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로소갈비’ 연락처 문의 15건 ○ 「아침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 제언’ 13건 ○ 「불후의 명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청’ 문의 8건 ○ 「가요무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청’ 문의 8건 <p>【기 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시청」 문의 1건 <p>【경 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문의 41건 ○ 「수신료」 문의 1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전화교환」 문의 9건 ○ 「주차」 문의 2건 외 2건 <p>【기 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전 문의사항 포함 97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결방 제언	<p>○ 「생로병사의 비밀」 (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6. 21.(수) 1TV (22:00-22:50) - 정보력이 떨어지는 고령층 시청자들은 해당 방송을 통해 건강 정보를 많이 얻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 편성으로 결방이 잦은 것 같아 속상하다.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시사 · 교양]	
방송 제언	<p>○ 「특별기획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 ‘2부’(1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6. 21.(수) 1TV (22:00-23:10) - 언론 미디어 전문가들과 함께 수신료와 공영방송의 가치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수신료 분리 징수에 반대하는 출연자들로 구성되어 찬반 토론이 이뤄지지 않아 유익하지 않았다. 방송사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송으로 여겨져 보기 불편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방송 호평	<p>○ 「시사기획 창」 ‘나의 난민 너의 난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6. 21.(수) 1TV (24:00-24:50) (재) - 더 많은 난민들이 한국에 정착하면 어떻게 될지 답을 찾기 위해 세계 각지의 난민들을 만나보았다. 전반적인 짜임새가 좋아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했고, 호소력 있는 방송이었다. 내국민과 난민을 차별하지 않는 독일의 사례를 보여준 점도 인상적이었다. 감명 깊은 방송이었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라디오]	
진행자 제언	<p>○ 「최영일의 시사본부」 (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6. 21.(수) 1R (12:20-13:57) - 진행자인 최영일 시사평론가가 3달째 자리를 비우고 있다. 건강상 이유라고 하는데, 병명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다. 한두 달 비웠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기간이 길어지니 청취자로서 걱정이 된다. 개인정보이긴 하지만, 공인인 만큼 방송에서 간단히 언급이라도 해줘야 한다. 아니라면 최영일 씨가 하차하고 새로운 진행자를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